



위에서 함께한 친구처럼 목주기도 신비가 3개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건 아니지? 설마;; ; 혹시나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까칠쌤과 함께 이번 10월호에서 함께 알 수 있게 될거야~ 저절로~~^^ 어떻게? 이렇게!!!!!!

로사리오 신비 카드게임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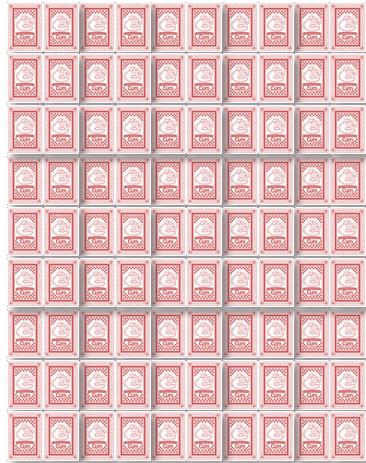


이 게임 하나면 목주기도 신비의 종류, 신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된다는 사실!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? ^^

재! 부록으로 나간 목주기도 신비 카드를 준비했지? 그럼 카드 구성부터 알아볼까?
 카드를 차례로 펼쳐 보면 **4개의 신비 카드(20종-2세트/40장), 사도신경 카드(6장),
 주님의 기도 카드(6장), 성모송 카드(6장), 영광송 카드(6장), 구원송 카드(6장), 목주 카드(8장),
 분심 카드(7장), 성모님 카드(5장)**를 볼 수 있어!
 모든 카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지금부터 방법을 잘~ 알아보자고~^^

첫 번째!

카드를 고르게 섞어 가로 10줄 세로 9줄로 뒤집어 둔다.
 잠깐! 게임을 제일 재미있게 하려면 4명이적당하다는 사실~
 하지만 5명까지는 게임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
 팀을 나눠서 진행해도 좋고,
 개인전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^^



두 번째!

하나의 신비를 모은다.
 잠깐! 카드 중에서 하나의 신비를 모두 모으는 것이 게임의 미션! 이라고 할 수 있어~
 * 사도신경카드, 주님의기도카드, 성모송카드, 영광송카드, 구원송카드와 함께 신비를
 순서대로 맞춰야 해! **모두 찾아야** 목주기도가 완성되겠지?



세 번째!

이긴 사람부터 차례로 2장의 그림 카드를 뒤집는다.

잠깐

① 2장이 같은 그림일 경우 가지고 오며, 다른 그림이면 그 자리에 그대로 뒤집어 놓아야 해!

② 뒤집어서 **목주 카드**가 나오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카드 중 한 장을 가져올 수 있어~ 카드를 뒤흔면 본 상황에서 한 장 가져와~

* 목주카드는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사용가능해!

③ 뒤집어서 분심카드가 나오면 그림에 있는 **사탄그림의 수만큼** 내가 가진 카드를 꼭! 버려야 해~ 다른 친구가 카드를 버리는 그 순간!!!! 나에게 필요한 카드라면 **'아멘'**을 외치고 가지고 올 수 있어! (순서와 관계없이 '아멘'을 외칠 수 있는데, '아멘'을 외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!!!)

* 3장을 버리더라도 '아멘'으로 가져올 수 있는 카드는 한 장만!

* '아멘'을 외친 뒤에는 카드 버린 사람의 오른쪽 사람부터 시작!

* 목주 카드는 사용 후 버리고, 분심 카드는 사용 후 아무 자리나 뒤집어서 놓으면 됨.

④ **성모님 카드**가 보이지? 총 5장이 들어있어~ 성모님 카드는 신비를 대신해서 놓을 수 있는 조커인거지! 뒤집어서 성모님 카드가 나오면 가지고 있다가 신비를 오픈하면서 나열 할 때 사용하면 되는 거야~ 목주카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빼앗아 갈 수도 있으니 꼭! 성모님을 지켜야해!

* 카드게임에서 성모님 카드가 함께하면 더 빠르게 신비를 완성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목주기도를 하는 것은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더 힘을 실어 기도하기 위한거야~



분심이라는 말 들어봤어? 목주기도 같은 영경기도(마음속으로 뜻을 생각하며 입으로 외는 기도)를 하다보면 다른 생각들이 나서(분심 들어서)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지? 그래서 우리게임에 분심카드를 준비했어!



목주 카드
(한 장 가져오기)



분심 카드
(수만큼 카드 버리기)

네 번째!

세 번째 방법으로 계속 게임을 진행하며,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신비 카드를 맞춘다.

잠깐! ① 신비 5개를 다 모았으면 자기 앞의 바닥에 보이게 놓으면 되고, 그 뒤에 사도신경, 주님의기도, 성모송, 영광송, 구원송의 카드를 모아서 바닥에 순서대로 맞출 수 있어~

② 바닥에 놓을 때는 꼭! 카드의 순서대로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!
(만약 순서가 헛갈리는 친구들은 **45페이지**를 펴볼까?)

다섯 번째! 다 맞춘 사람은 '로사리오'라고 크게 외친다.



자~ 이제 신비가 몇 개 있는지, 어떤 순서로 묵주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겠지? ^^
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묵주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? 그리고 누가 먼저 하게 되었을까?
 궁금하지? 그래서 까칠쌤이 또 준비했지! (아... 10월호는 너무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;;)

묵주기도는?

옛날 옛적부터 같은 기도를 외우면서 되풀이하던 것은 여러 종교 안에 있었어~ 친구들도 알다시피 같은 걸 계속 외우면 몇 번 했는지 잊어버리게 되지? 그래서! 손가락이나 돌멩이를 사용해서 몇 번 했는지 확인을 했던 거지~ 옛 수도자들은 매일 150편의 '시편'을 빠짐없이 바치기 위해 숫자를 헤아리는 도구를 사용 했다고 해~ 얼마나 숫자 세기가 힘들었겠어? 그래서 위에 말한 것처럼 도구를 사용하게 된 거야! 수도원 근처 교우들은 이를 본받아서 주님의 기도를 150번씩 바치다가 지금의 묵주기도 형식으로 변경되게 되었어~

시편 150편 분량의 숫자를 헤아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



1569년 비오 5세 교황님께서 환희, 고통, 영광의 신비로 각 5단씩 표준화시킴



2002년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예수님의 공생활 중 5가지 주요사건을 묵상하는 <빛의신비>를 추가함



1974년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묵주기도는 '복음 전체의 요약이며,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는 기도이다' 강조하심

환희의 신비 -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 탄생의 기쁨과 신비를 묵상



빛의 신비 -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공생활 중 다섯 가지의 주요 사건을 묵상



고통의 신비 -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의 신비를 묵상



영광의 신비 - 예수님과 성모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에 관련된 신비를 묵상



**이렇게 묵주기도는 예수님의 태어남, 공생활, 돌아가심, 부활하심의 순서로 되어있어~
 즉, 예수님의 일생을 담고 있는 거지! 이젠 헛갈릴 일 없겠지?^^**

목주기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었고, 신비 순서도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?
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? 그렇지! 역시 우리 CUM 친구들은 다른걸~
 함께 목주기도를 해야겠지? ^^ 순서가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 준비했어~
 아래 그림에 순서를 적어보고, 우리 교리반의 공동 지향을 정해서 그 지향을 위해
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~!

(단, 지향은 기도의 시작과 마침에 기억하며, 기도를 드리는 동안은 목주기도의 신비를 묵상해야 해!)
 입으로만 외우는 목주기도는 넣어둬~
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며, 마음을 다해 기도 하는 걸로~!!

